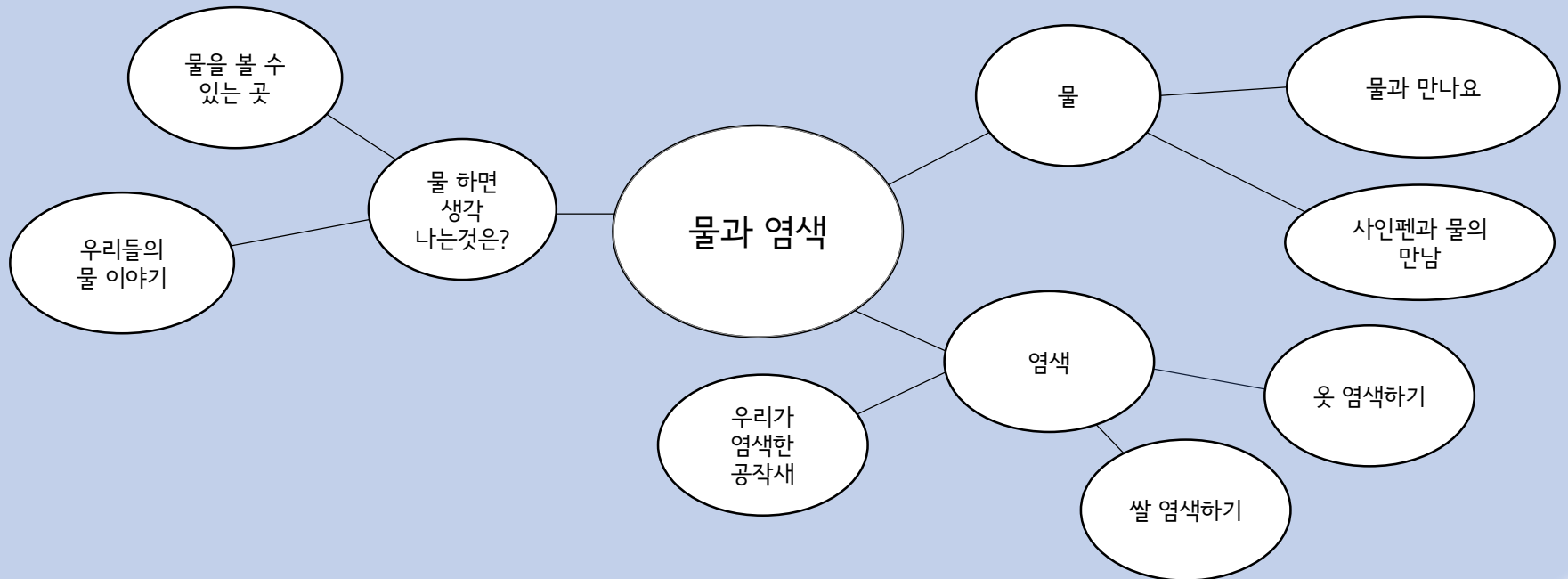


‘물과 염색’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코로나로 인해 튼튼 수영장에서 물놀이는 못하지만, 바깥 놀이 수돗가에서 물 호수로 운동장에 물을 뿌리며 잠깐이나마 더위를 식히면서 아이들은 물놀이 경험을 이야기를 하며 더운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물 속에 물감이 퍼지는 모습을 보며 물과 색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7.05. ~ 9.03.)



우리들의 물 이야기



나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어!



나는 가족이랑 캠핑장에 가서 물놀이를 했어



나는 형이랑 물총 놀이를 했어~



동생이랑 수영장에 갔어요



형이랑 물총 놀이를 했어요

“물”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야기 나누어 보며 ‘물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림으로 표현하여 소개해주었습니다.



가족이랑 캠핑장에 가서 수영을 했어요



엄마, 할머니, 언니와 수영장에 갔어요

“공원에 있는 분수대에서 놀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공원에 있는 분수대에서 놀았어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했어요” 등 다양한 물놀이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물을 볼 수 있는 곳

"물은 어디에 쓰일까?"

물에 대한 이전 경험을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고 시원한 우리들의 물놀이에서 친구들은 물의 쓰임과 종류, 다양한 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놀이, 물과 관련된 도구, 물을 사용하는 방법, 물이 있는 장소 등으로 나누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물놀이는 계곡에서도 할 수 있어!



언뜻에도 물이 있어!



4가지의 주제를 정하여 우리 생활에서 물이 사용되는 곳을 생각해보며 자신의 생각을 물방울 속에 적어 적절하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정수에게도 물이 사용되고 있어!



목욕을 할 때도 물이 사용돼



물과 만나요

"물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물과 관련된 놀이를 하던 친구들은 습자지에 물을 떨어트려 물이 번지는 모양을 관찰하며, "습자지가 녹는 것 같아", "물이 엄청 빨리 퍼져" 등 습자지 종이에 물이 번져나가는 것에 흥미를 가지며 물과 다른 물체가 만나 어떻게 변화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여러가지 색의 습자지를 물에 넣어 새로운 색을 만들고 물감을 섞어 혼합하여 놀이하던 친구들은 물에 녹는 것, 섞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밀가루는 물에 녹지 않는 것 같아!



커피는 차가운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따뜻한 물에는 잘 녹아!



식용유는 물에 녹지 않고 나눠졌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초, 식용유, 커피가루, 밀가루, 설탕, 참기름 등을 물에 넣어 물과 섞이는 과정과 물과 분리되어 층이 생기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사인펜과 물의 만남

내가 그린 그림이
도장처럼 찍혔어!



페이퍼타올 위에 각자의 그림을 그린 후, 그림 위에 새 페이퍼타올을 겹쳐 올려 물을 묻혀 보며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물을 묻히니까 내가
그린 그림이 번져!

"사인펜이 물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도화지에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던 친구들에게 물에 젖은 핸드 타올을 제공하고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와~ 사인펜이 점점 번져나가" 라며 아이들은 더 멋진 그림을 그렸습니다.

난 무지개를 만들고
있어!



난 지렁이를
만들었어~



'번짐'의 현상을 관찰한 친구들은 페이퍼타올을 찢어보고 구겨보고 색종이처럼 접어보며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 붙이고 사인펜을 이용해 색칠하고 꾸미며 새로운 방법으로 놀이해보고 또 다른 '번짐'의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염색한 공작새

"염색을 해보자!"

물과 사인펜으로 놀이를 하며 '번짐'의 현상을 발견한 친구가 "염색이 되는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하며 친구들은 염색을 해보자며 제안했습니다.

어떤 재료를 이용해 염색을 해볼까?에 대해 고민을 하던 친구들은 물감을 이용해 염색을 한 후, 염색된 종이를 찢고 오려 알록달록 공작새를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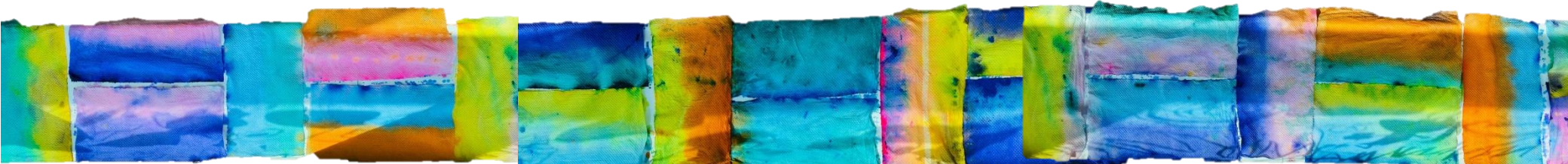
물감이 미끄럼틀처럼 아래로 내려와!



물감 물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염색이 되고 있어!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감을 이용하여 키친타올을 염색하기로 하여 키친타올을 돌돌 말아 여러가지 색의 물감 물에 담가 물이 흡수되어 염색이 되는 과정을 관찰하였습니다.



쌀 염색하기

흰 도화지 위에 아이들의 원하는 색의 파스텔을 칠한 후,
그 위에 쌀을 부어 손으로 문지르며 다양한 색으로 쌀을 염색해보았습니다.

쌀이
파랑색으로
염색되고 있어!



쌀을 잘 섞어야
염색이 잘 돼~



투명 봉지 속에 쌀을 넣고 매직으로 쌀을 저은 후, 봉지를 흔들며 내가 원하는 색으로 쌀을
염색하고 투명 컵에 색깔 별로 층을 나누어 담아주었습니다.

“쌀도 염색이 될까~?”

점심 식사 시간 중 “선생님, 쌀도 염색이 될까요?”라는 한 친구의 질문에
“야, 쌀은 딱딱해서 염색이 안돼!”, “쌀에 색칠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내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파스텔과 매직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흰 쌀을 염색해보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목걸이

“특별한 목걸이를 만들어보자!”

다양한 색의 물들이기에 관심이 몰린 친구들은
“우리가 물들여서 목걸이나 마스크 줄을 만들어 봐요!”하며 친구들과
함께 물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해 탐색했습니다.



나는 주황색
목걸이를
만들거야!



염색한 페네를 자유롭게 꾸며준 후, 각자가 원하는 색의 순서로 줄에 하나씩 끼워
세상에 하나뿐인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분홍색부터
할거야!



무늬를 그려
줄거야!



페네 파스타 면을 만져보기도 하고 서로 부딪혀보며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고 봉투에 넣은 후,
각자가 원하는 색의 색소를 떨어뜨려 섞어주며 염색을 해보았습니다.

나만의 옷 디자인

난 보라색으로
물들일거야!

천연 염색 가루를 물과 섞어 염색 물을 만들고 붓을 이용해 자신의 옷에 자유롭게 뿌리며 한 방울씩 떨어트리거나 붓을 옆으로 흔들며 지그재그 선을 만들어주며 자유롭게 옷을 디자인 하였습니다.

난 노랑색으로
염색할거야!



나는 여러가지 색을
섞을거야!



난 노랑색
동그라미를
만들거야

“디자이너가 되어보자!”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자신의 목걸이를 뽐내며 모델 흉내를 내던 친구들은 “우리 옷도 염색해요”라며 디자이너가 되어 옷에 물을 들였습니다.



슬기튼튼 2반 패션쇼



아이들이 직접 염색한 옷을 입고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포즈를 잡고
당당하고 멋진 워킹을 하며 앞으로 나와
자신의 옷과 목걸이를 뽐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물놀이를 시작으로 물에 색이 '흡수', '번짐' 되어지는 현상을 발견하여 관심을 가진 아이들은 그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물들이기로 이어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물들여보고 각자의 방법으로 표현해보며 놀이하셨습니다. 놀이를 통해 물의 다양한 종류와 쓰임과 물들이지는 과정을 통해 옷을 디자인하며 자신을 표현해 보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